

교회소식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6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평화부에서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평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고, 강사는 <희망의 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입니다.

류형윤 씨와 최지현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7월2일(토) 오후 1시 육군회관/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 기획위원회가 7월2일(토)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단양 유암교회 교인들이 재배한 무농약 마늘(한지형 옥쪽마늘, 크기 2.8cm이상)을 주문 받습니다. 3kg 38,000원입니다.

민족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기도를 통해 주님께 계속해서 아뢰시다.

사도행전 18:24~28

오늘 식당 봉사 : 찬양대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곽혜자 이명희 이영욱 장은주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41-45세)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떡 대 접 : 이용현 최연실 (결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의
소
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6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올해로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른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골은 깊어만 가고 북의 도발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속히 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랜 분단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한 형제자매 됨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들은 점점 자국의 이익만을 위할 뿐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담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계가 좀 더 성숙한 세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교 독 문 102. 나라 사랑(4)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안길상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다 함께

♣ 성경봉독 겔 37:16-23 I. 인도자
II. 류건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양 내 주의 보혈은 참빛찬양대

말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김재흥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김기성 이은정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재환 김진선 김준호 광해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현 김철수 김철수 김유영
김해선 김희진 박홍재 박영희 박창운 허정운 백성래 송인섭 우순덕 이원호
윤성종 김윤정은종 이상준 이왕준 송상경 이유선 이영진 이정은 이준립
이치림 강상연 임영희 장동훈 정은선 장원호 박성희 전영린 김행자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최옥자 최철수 광권희 최 현 추현영 한봉섭 허명선 허성호
진은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2

감사헌금

김남균 박정애 김성곤 김인숙 김중수 이순정 김해선 김현영 김혜라 김희선
박재영 이현정 윤성종 김윤정 이경수 김혜민 이명균(이용현) 이미정 이부용
이용현 최연실 이은혜 임선양 신현숙 임형욱 장영숙 정복순 최미선 추은총
홍성식 이유리 무명

녹색꿈헌금

김영호 박원재 이재문 임설희 조영순 무명5

생일감사헌금

김근종 정옥영 정경례 조순덕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정두리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이소순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박정숙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배삼순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유금주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이정은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김명희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김희우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하나

내가 태어난 때부터 사랑하는 조국은 둘이었네
 슬픈 역사가 이 땅을 갈라도 마음은 서로 찾았네 불렀네
 불을 비빌까 껴안을까 꿈결에 설레만 가는 우리
 처음 보아도 낯익은 얼굴아 가슴에 맺힌 이 아픔 다 녹이자
 함께 부르자 함께 부르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들릴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어린 품속에 그려본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였네
 오랜 세월이 목이 다 말라도 마음은 서로 눈물로 적셨네
 불을 비빌까 껴안을까 반가와 이야기 나누는 우리
 처음 보아도 낯익은 얼굴아 이 땅에 스민 이 눈물 다 말리자
 함께 춤추자 함께 춤추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보일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하나로 되자 하나로 되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 리명옥 운영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브라스밴드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나누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의 꿈이었던 하나 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어느덧 갈라짐과 분열에 익숙해진 채 하나 됨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분열된 세상에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랑의 길을 만드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평화세미나 '평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신영신 집사	

6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이소애			
	1부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한성건 진정숙 이오복 이현순			
	2부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지구온난화...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 문제가 누구나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무엇을 해야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지구를 식힐 수 있을까.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 의장이 한 가지 답을 내놓았다. “일주일에 하루쯤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다.

파차우리 박사는 한 강연에서 인류가 고기를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지구 육지의 30%가 축산용이고, 곡물의 3분의 1은 사료로 쓰인다. 전 세계가 생산한 콩의 90%는 가축이 먹는다. 축산에는 또 다량의 물과 에너지가 든다. 쌀 1kg 생산에 3000L의 물이 필요하지만 같은 무게의 쇠고기를 얻으려면 1만5500L가 든다. 사료 10kg을 먹여야 쇠고기 1kg을 얻는다.

축산은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3배 큰 메탄가스 발생량의 37%를 가축이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없애고 목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축의 배설물과 소화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이 주 성분인 트립도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산성비를 발생시키는 암모니아 배출량의 64%가 축산에 의해 발생한다.

게다가 세계의 육류소비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08년 세계의 가축 수는 인구의 약 10배인 600억 마리였지만 2050년이면 그 수는 곱절인 1200억 마리로 늘 전망이다.

파차우리 박사는 “쇠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그리고 인산염이 발생한다”며 “특히 쇠고기 1kg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승용차로 250km 주행할 때 나오는 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 또한 169MJ(메가줄)에 이르며 이중 3분의 2 이상이 사료의 생산과 수송에 사용되는 것이고, 이는 100W 전구를 20일 동안 켜놓는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육류는 소비되어지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운반과 보관을 위한 냉동 설비가 필수적이고 포장 또한 다른 대체 음식에 비해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며 조리방법 역시 다른 음식에 비해 고열과 긴 조리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 육류는 여러 폐기물(뼈, 지방, 유통기한 만료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 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게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영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자동차 500만대가 운전을 하지 않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해마다 수입하는 옥수수, 콩, 밀 등 곡물 1천600만t의 2/3가 사료용이다. 닭 1억5천만 마리를 비롯해 돼지 1018만 마리, 한육우 256만 마리를 먹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2014년 일인당 연간 51.3kg(하루 140g)으로 지난 3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났고 증가추세에 있다.

파차우리 박사는 직접 식단을 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기도 했다. 쌀밥에 브로콜리, 가지, 꽃양배추로 짠 식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프스테이크 한 접시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건강과 지구에 모두 좋은 실천이 그리 멀리 있지는 않다. 작은 실천이 거창하고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